



표준 발음법

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5항.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ㅛ ㅕ ㅗ ㅛ ㅜ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단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ex) 문의 무늬를 문의하다 [무늬/무네 무늬를 무늬/무니하다]

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9항. 받침 'ㄱ, ㅋ, 'ㅌ, ㅍ,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비]으로 발음한다.

다만, '뱌'는 자음 앞에서 [뱌]으로 발음하고, '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뱌]으로 발음한다. 뱌죽하다[뱌쭈카다] 뱌둥글다[뱌똥글다]

ex) 뱌다[뱌:따] 뱌지[뱌:찌]

11항. 겹받침 'ㄹ, ㅂ,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비]으로 발음한다.

ex) 읍고[읍꼬] 맑다[막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ex) 맑게[말께] 뭉고[물꼬]

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ㅏ, ㅑ)'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ㅌ]으로 발음한다.

ex) 놓고[노꼬] 종던[조:던] 많고[만:꼬]

붙임 1. 받침 'ㄱ(ㄹ), ㄷ, ㅂ(ㅍ), ㅌ(ㅍ)'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ㅍ, ㅌ]으로 발음한다.

ex) 각하[가카] 꽃히다[꼬치다]

한 단어 안에서는 다른 음운 변동보다 축약이 먼저 일어난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ㅌ, ㅌ, ㅌ'의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ex) 꽃 한 송이[꼬탄송이] 낮 한때[나탄때]

2. 'ㅎ(ㅏ, ㅑ)' 뒤에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을 [ㅌ]으로 발음한다.

ex) 닿소[다쏘] 많소[만쏘]

13.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엔,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ex) 깎아[까까] 옷이[오시] 꽃을[꼬출]

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ㅌ'은 된소리로 발음함.)

ex) 닭을[달글] 낮이[넉씨]

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ex) 꽃 위[꼬뒤] 밭 아래[바다래]

헛웃음[허두슴] 음은 접사이므로 ㅌ이 연음되나 웃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대표음으로 바뀐 후 ㄷ이 음절 첫소리로 옮겨진다.

17항. (구개음화)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돼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18항. (비음화) 받침 'ㄱ(ㄱ, ㅋ, ㄴ, ㄹ), ㄷ(ㅌ, ㅍ, ㅌ, ㅍ), ㅌ(ㅌ,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미]으로 발음한다.

ex) 깎는[강는] 밟는[밤는] 꽃망울[꼇망울]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9항. (비음화) 받침 'ㄷ,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ex) 강릉[강능]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ex) 막론[막논->망논] 십리[십니->십니]

20항. (유음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ex) 신라[실라] 물난리[물랄리]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3항. (경음화) 받침 'ㄱ(ㄱ, ㅋ, ㄴ, ㄹ), ㄷ(ㅌ, ㅍ, ㅌ, ㅍ), ㅌ(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x) 국밥[국뱌] 깎다[깎따]

24항. (경음화)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x) 삼고[삼꼬]

25항. (경음화) 어간 받침 'ㅌ,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x) 할대[할따]

27항. (경음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x) 할 바를[할빠를] 할길[할길]

28항. (경음화) 표기엔 사이시옷이 없어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ㅌ, ㅌ'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ex) 손재주[손재주]

29항. (ㄴ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ex) 숨이불[숨니불] 꽃잎[꼇닙] 막일[망닐] 직행열차[지갱널차]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ex) 물약[물냏->물락]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다음 경우에 받쳐 적는다. 순우리말이나 순우리말과 한자의 합성어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ex) 나룻배 전셋집
  -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ex) 아랫니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ex) 나룻잎
- 한자의 합성어에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 30항-1. (사이시옷) 'ㄱ, ㄷ, ㅂ, ㅌ, 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ex) 콧등[코똥/콘똥]

## 2. 단어의 종류

### 단어의 분류

1) 품사: 단어를 형태·기능·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것(9개)

기준	형태	기능	의미	
단어	가변어 활용할 때 형태 변함	용언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불변어 형태 고정됨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관계언		조사	
	독립언	감탄사		

cf. 서술격 조사 '이다':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을 서술어로 만들어 이-에 어미가 붙어 활용함

### 체언

문장에서 주어·목적어·보어로 쓰임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음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 1) 명사

사람·사물·장소·시간·행위의 이름을 나타냄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임
고유 명사	특정 하나의 대상에만 쓰임

자립 명사	홀로 쓰일 수 있음
의존 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함 ex) 것, 때문, 뿐

#### 2) 대명사

사람·사물·장소·시간·행위의 이름을 대신함

인칭 대명사	사람 ex) 나, 너, 그, 우리
지시 대명사	사물·장소 ex) 저것, 여기, 이곳

미지칭	모르는 사람·사물·장소 ex) 무엇, 어디
부정칭	정해지지 않은 사람·사물·장소 ex) 아무, 아무개
재귀칭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냄 ex) 자기, 저, 당신 동수는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cf. 대명사 대신

인칭 대명사: 당신은 미국에 가보았습니까?

재귀칭 대명사: 할머니는 당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cf. 너 지금 뭘 먹니?

미지칭: 먹는 것이 무엇인지 vs 부정칭: 뭐라도 먹는지

#### 3)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양수사	수량을 셈 ex) 하나, 둘, 일, 이
서수사	순서를 가리킴 ex) 첫째, 둘째

정확한 수	하나, 둘, 일, 이, 첫째, 둘째
대략적 수	한둘, 서넛, 너댓, 한두께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음

### 독립언 - 감탄사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짐

놀람·느낌·부름·대답 등 나타냄 ex) 앓,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음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심표를 찍음

### 용언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작용·성질·상태를 나타냄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고 부사의 꾸밈을 받음

#### 1)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냄

타동사	목적어 필요함 ex) 쓰다, 마시다
자동사	목적어 필요하지 않음 ex) 피다, 졸다

#### 2)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성상 형용사	직접 나타냄 ex) 작다, 검다, 아프다
지시 형용사	대신하여 가리킴 ex) 그러하다, 아무하다, 아무러하다

#### 3)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양상

	동사	형용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	어간에 붙을 수 있음 ex) 간다, 잡는다	어간에 붙지 않음 ex) 예쁘다, 좁는다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 ex) 잡는, 서는	-(으)ㄴ ex) 큰, 작은
명령형·청유형	쓰임 ex) 먹어라, 먹자	쓰이지 않음 ex) 작아라, 작자
목적·의도 -(으)려고/-고자	어간에 붙을 수 있음 ex) 읽으려고, 읽고자	어간에 붙지 않음 ex) 작으려고, 작고자

### 용언의 활용

어간	실질적 의미를 가졌으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문법적 의미를 가졌으며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 1) 어말 어미

용언의 맨 끝에 와서 단어를 이름

종결 어미	문장의 끝에 와서 문장을 종결시킴 평서형 -다 감탄형 -구나/-는구나 청유형 -자 의문형 -느냐/-냐 명령형 -어라/-아라
연결 어미	단어나 문장을 연결함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며,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 -어서/아서, -(으)니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전성 어미	품사를 바꾸진 못하지만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함 명사형: -(으)ㅁ, -기 관형사형: -(으)ㄴ, -는, -(으)르, -던 부사형: -게, -도록, -듯이

#### 2) 선어말 어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있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시제 선어말 어미	-느/는-, -었/았-, -겠-, -었었-
공손 선어말 어미	-옵-, -사옵-

#### 3) 규칙 활용

어간·어미 모두 변하지 않거나 변하는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

ㄹ탈락, ㅡ탈락, 동음 탈락. 모음 축약

모음 축약	
ㄲ, ㄷ	어간 끝 모음 ㄱ/ㄱ가 어미 첫 모음 ㅏ/ㅏ 앞에서 ㄲ/ㄷ로 축약 ex) 가두+어라 → 가뒤라
ㄷ	어간 끝 모음 ㅣ가 어미 ㅏ, ㅓ 앞에서 이중모음 ㅓ로 축약 ex) 텨비+어라 → 텨벼라

4) 불규칙 활용

어간 변화	ㅅ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잇+어 → 이어
	ㄷ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ㄷ 됨	묻+어 → 물어
	ㅂ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 됨	돕+아 → 도와
	ㄹ	ㄹ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ㄹ 됨	흐르+어 → 흘러
	우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어미 변화	여	하- 뒤에 오는 어미 어/아가 여 됨	공부하+아 → 공부하여
	리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로 됨	이르+어 → 이르러 푸르+어 → 푸르러
	오	명령형 어미 -아가 -오 됨	달+아 → 다오
어간 어미 변화	ㅎ	ㅎ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하얙+아서 → 하여서 파랗+아 → 파래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줌

1) 관형사

체언을 꾸며 줌·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형태가 변화하지 않음

성상 관형사	체언의 성질·상태를 제한함 ex) 새, 현, 옛, 맨
지시 관형사	대상을 가리킴 ex)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수 관형사	사물의 수량·순서 ex) 한, 두, 세, 네, 첫째, 둘째

2) 부사

용언이나 문장을 꾸밈	활짝, 아주, 길이, 실로, 비록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밈	너무 옛 물건,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드물게 체언을 꾸밈	바로 너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로움 ex) 빨리 이걸 먹어라 /이걸 빨리 먹어라

성분 부사	특정 문장 성분을 꾸밈 ex) 빨빨, 생생히, 이리, 그리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밈 ex) 설마 접속 부사도 포함됨 ex) 그러나, 그리고

cf. 부사·관형사와 조사의 결합

부사·관형사는 격조사× 부사는 뒤에 보조사○ 관형사는 보조사×

cf.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의 차이

지시 관형사: 인 /사람은 - 관형사이므로 뒤에 꾸며주는 체언이 있음

지시 대명사: 인를 통해 - 체언이므로 뒤에 조사가 붙음

cf. 수사와 수 관형사의 차이

수사: 둘에 둘을 더하면 넷. 다섯까진 필요 없다. 열을 셀 때까지 해.

수 관형사: 사과 다섯 개, 모인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관계언 - 조사

다른 단어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표시·특별한 의미 더함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 있는 말(주로 체언) 뒤에 음

1)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자격을 갖도록 함

주격	이/가, 께서(높임), 에서(단체)		
서술격	(이)다	목적격	을/를
보격	이/가	관형격	의
부사격	에게, 에서, 예, (으)로, 와/과, (이)랑, 께, (으)로서, (으)로써, 처럼, 같이, 만큼		

2) 보조사

체언·부사·어미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줌

성분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종결	문장 맨 끝에 와서 감탄의 의미를 덧붙인다. ex) 그가 갔다마는. 그가 갔구면그래.
통용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함

3)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ex) 와/과, 하고, (이)랑

cf. 와/과/(이)랑

영희는 철수와 공부한다. - 부사격 조사

영희와 철수는 공부한다. - 접속 조사

cf. 격 조사는 자주 생략됨·대신 보조사가 붙기도 함

ex) 누니까 지금 밥 먹어. ex) 그카도 과자를 좋아해.

그러나 보조사는 생략되면 의미 파악 어려워 생략×

3. 단어의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외래어는 현용 24자모만 사용하여 적음 ㄱ~ㅎ·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 그 조합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시함
받침에는 ㄱ·ㄴ·ㄷ·ㄹ·ㅁ·ㅂ·ㅅ·ㅇ만을 사용함 ex) 커피숍(○) 커피숍(×)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음 ex) 버스(○) 버스(×)
이미 굳어진 외래어를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ex) 카메라(○) 캐머러(×)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자음 동화·ㄴ첨가·구개음화·격음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현함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띄어쓰기 규정

1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ex) 한 개 ex) 열 살
4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ex) 12억 3456만 7898
5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ex) 국장 겸 과장 ex) 열 내지 스물 ex) 청군 대 백군 ex) 사과, 배, 굴 등등 ex) 책상, 걸상 등
6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ex) 그 때 그 곳 (○) 그때 그곳 (○) ex) 이 말 저 말 (○) 이말 저말(○)
7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ex) 불이 꺼져 간다.(원칙) 불이 꺼져간다.(허용) 다만 아래의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1] 본 용언에 조사가 붙음 ex) 잘도 놀아 <u>만</u> 나는구나! [2] 앞말이 합성 동사임 ex) 내가 덩벼 <u>들</u> 어 보아라. [3] 중간에 조사가 들어감 ex) 그가 올 <u>듯</u> 도 하다.
8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ex) 김양수 ex) 충무공 이순신 장군 ex) 채영신 씨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때는 띄어 쓴다.
9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ex) 대한 중학교(원칙) 대한 중학교(허용)

#### 4. 단어의 형성

##### 단어의 형성

###### 1)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나, 는, 잘, 익-, -은, 과일, 을, 아이, 에게, 먹-, -이-, -었-, -다

######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 유무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음 명사·대명사·수사·관형사·부사·감탄사 ex) 나, 잘, 과일, 아이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음 동사 어간·형용사 어간·어미·조사·접사 ex) 는, 익-, -은, 에게, 먹-, -이-, -었-, -다
의미의 성격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냄 명사·대명사·수사·관형사·부사·감탄사·동사 어간·형용사 어간 ex) 나, 잘, 익-, 과일, 아이, 먹-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의미를 나타냄 조사·어미 ex) 는, -은, 을, 에게, -이-, -었-, -다

###### 2)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 자립해 쓰일 수 있는 단위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함

cf. 조사를 단어 처리한 이유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저, 넓은, 밭, 을, 갈고, 있는, 사람, 은, 이, 마을, 에, 오래, 살았다

#####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ex) 헛기침, 맨손, 사장님, 먹이
접사	어근에 붙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덧붙이는 부분 ex) 헛기침, 맨손, 사장님, 먹이

cf. 어미와 접사의 차이점

어미는 용언의 어간만 바꾸어주고 조어적 기능이 없다.  
접사는 단어의 모양·품사를 바꾸고 조어적 기능이 있다.

ex) 높은·높게 너무·넘게

용언	활용	설명
높-	어미 '은'	형용사 '높'을 활용한 '높은'이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사용됨
	접사 '이'	부사 '높이'라는 단어가 창조됨
넘-	어미 '게'	동사 '넘'을 활용한 '넘게'가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사용됨
	접사 '우'	부사 '너무'라는 단어가 창조됨

#####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뤄짐 ex) 바다, 물, 줄다, 넓다 이때 어미는 고려하지 않음 ex) 먹다, 먹었다는 단일어이다	
복합어	합성어	두 직접 구성 요소 다 어근 ex) '집' '밥', '건널' '목' 직접 구성 요소: 말을 둘로 쪼개었을 때 각각을 가리킴
	파생어	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 ex) 헛돌다, 빼기

#### 합성어의 형성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음 명사+명사(팔죽),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어린이),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걸어간다)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용언 어간+명사(절갈), 용언 어간+용언 어간(검붙다), 비자립적 어근+명사(보슬비)

cf. 합성어에 어미가 붙어있기도 하다

쓸데없다 = 쓰(어근) + 르(어미) + 데(어근) + 없(어근)

##### 파생어의 형성

###### 1) 접두 파생어

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

[1] 관형사형 접두사: 명사에 붙어서 관형사와 유사한 기능을 함

접두사	의미	예
강-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강굴, 강술, 강참숯
	마른	강기침, 강모
	억지스러운	강호령
개-	호된, 매우 센	강행군, 강추위
	야생의	개살구
개-	질이 떨어지는	개떡
	쓸데없는	개수작, 개죽음, 개꿈
군-	쓸데없는	군소리, 군살, 군침, 군말
	가외로 더한	군식구, 군사람
날-	생 것의, 아직 익지 않은	날것, 날고기, 날김치
	아주 지독한	날도둑, 날강도
대-	가득 찬	대낮
	큰(대단한)	대기록, 대성공
덧-	본래 있는 위에 더, 겹쳐, 거듭된	덧니, 덧신, 덧저고리
돌-	야생으로 자라는, 품질이 떨어지는	돌마나리, 돌김, 돌미역
들-	야생으로 자라는	들깨, 들국화, 들장미, 들소
맨-	오직 그것뿐인, 다른 것이 없는	맨몸, 맨발, 맨주먹, 맨땅
메-	찰기가 없어 메진	메조, 메벼
막-	거친, 품질이 낮은	막국수, 막과자
막-	다치는 대로 하는	막노동, 막별이, 막말
만-	같은 항렬 등에서 첫째인	만아들, 만며느리, 만이
민-	꾸미거나 달린 것이 없는	민얼굴, 민머리, 민소매
선-	익숙하지 않고 서툰	선무당, 선웃음
	충분치 않은	선잠
알-	뒹어 쓴 것을 다 제거한	알몸, 알밤
	진짜	알거지, 알부자
시-	시집의, 시가의	시아머니, 시부모, 시삼촌
애-	어린	애호박, 애벌레, 애순
양-	서구식의, 외국에서 들어온	양담배, 양배추, 양송이
을/오-	자람과 익는 정도가 빠른	을벼, 을밤, 오조
찰	찰기가 있는	찰떡, 찰흙
	매우 심한	찰거머리, 찰가난
참-	진짜의, 진실하고 올바른	참뱀, 참사랑, 참똥
	품질이 우수한	참숯, 참흙
풋-	덜 익은, 처음 나온	풋사과, 풋고추, 풋나물
	미숙한, 깊지 않은	풋사랑, 풋잠
한-	큰	한길, 한걱정
	한창인, 정확한	한여름, 한밤중, 한복판
햇-	같은	한배, 한마을, 한집안
	숨을 둔	햇바지, 햇웃
햇-	짜을 맞춘	햇어미, 햇어비
햇-	보람 없는	햇고생, 햇결음, 햇소문
홀-	짜이 없이 혼자뿐인	홀어비, 홀몸
홀-	하나인, 한 점인, 혼자인	홀이불, 홀몸, 홀바지, 홀웃

[2] 부사성 접두사

용언에 붙어서 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두사

접두사	의미	예
덧-	거듭, 겹쳐서	덧나다, 덧대다, 덧붙다
되-	도리어, 도로, 다시	되걸리다, 되새기다
뒤-	몹시, 마구, 온통	뒤끓다, 뒤덮다
	반대로, 뒤집어	뒤바꾸다, 뒤엎다
드-	정도가 한층 높게	드높다, 드세다
들-	마구, 몹시	들쭉시다, 들볶다, 들끓다
막-	주저없이, 함부로	막가다, 막지르다
빚-	잘못	빚나가다, 빚디디다
옛-	어린	옛되다
엇-	비뚜로, 어긋나게	엇가다
옛-	남몰래, 가만히	옛듣다, 옛보다
올-	일찍되게, 야무지게	올되다, 올차다
짓-	함부로, 흠뻑	짓누르다, 짓밟다
치-	위로	치솟다, 치닫다
새-/시- 셋-/씻-	빛깔이 짙고 산뜻하게	새하얗다, 새빨갳다, 시뻘겟다, 셋노랑다, 씻누렇다
헛-	보람 없이, 잘못	헛놓다, 헛살다

2) 접미 파생어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

한정적 접사: 어근에 뜻을 더해줌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

[1] 한정적 접사

사람을 표시하는 접미사

접미사	의미	예
-꾼	어떤 일을 전문적/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노름꾼, 사기꾼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구경꾼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장난꾸러기
-내기	그 지역에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서울내기, 시골내기
-동이	그런 성질이 있음	바람동이, 쌍동이
-보	그러한 행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람	피보, 잠보
-뱅이	그런 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	주정뱅이, 가난뱅이
-장이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	미장이, 뺨장이
-쟁이	그것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멋쟁이, 점쟁이
-배기	나이가 들	한 살배기
	그와 같은 물건	진짜배기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물건	접박이, 차돌박이

기타

접미사	의미	예
-다랑-	정도가 꽤 뚜렷함	굵다랑다, 높다랑다
-들	여럿	사람들, 나무들
-뜨리/트라-	강세	넘어뜨리다
-치-	강세	밀치다, 넘치다
-새-	모양	짜임새
-양/영-	색깔, 모양에 관계있는 말에 붙음	까맣다, 동그랗다
-어치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정도	값어치
-이/히/리/가-	사동이 피동	먹이다, 남기다, 먹히다
-질	노릇과 짓	낚시질, 도둑질
-치	태도	눈치
-희	복수 표시	저희, 너희

[2] 지배적 접사

동사화 접미사

접미사	예
-하-	운동하다, 공부하다
-이히리기우구추-	밝히다, 높이다, 낮추다, 좁히다
-거리-/대-	출렁거리다, 머뭇거리다, 출렁대다, 으스스대다, 뻔대다
-이-	반짝이다, 글썽이다, 흘쩍이다
-애-	없애다

명사화 접미사

접미사	예
-음	웃음, 얼음, 걸음, 믿음, 게으름
-이	오뎅이, 털링이, 놀이, 높이, 넓이
-기	말하기, 본보기, 굶기
-개	털개, 지우개, 찌개, 이쑤시개, 가리개
-애	마개(막+애), 열개(열+애)
-게	지게, 집게
-어지	나머지(남+어지)
-엄	무덤(묻+엄), 주검(죽+엄)
-응	마중(맞+응)

형용사화 접미사

접미사	예
-하-	가난하다, 씩씩하다, 울퉁불퉁하다
-스럽-	자랑스럽다, 걱정스럽다, 복스럽다
-답-	신사답다, 정답다
-롭-	항기롭다, 평화롭다, 새롭다
-업-	미답다(민+업+다)
-브-	아프다(앓+브+다), 슬프다(슬+브+다)
-읍-	우습다(웃+읍+다)
-ㅂ-	그럽다(그리+ㅂ+다), 놀랍다(놀라+ㅂ+다)

부사화 접미사

접미사	예
-이	많이, 높이, 반듯이
-히	급히, 꾸준히, 넉넉히, 똑똑히
-오	비로소(비롯+오)
-우	너무(넘+우), 마주(맞+우), 바투(발+우)
-아	차마(참+아)
-로	새로, 날로, 진실로
-내	끝내, 마침내, 여름내, 겨울내
-껏	정성껏, 마음껏
-금	하여금

관형사화 접미사

접미사	예
-적	우호적, 정신적
-까짓	그까짓, 이까짓

cf. 접사 -이-와 서술격 조사 -이다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모양 ex) 사랑이다

부사 뒤에 접사 -이-와 종결 어미 -다가 붙은 모양 ex) 반짝이다

모양은 같지만 구성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cf. 어간과 어근

어미와 다르게 접사는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어근과 접사를 포함한 부분까지가 어간이다.

ex) 어근 접사 어간

어근=어간: **높다** **높**았다

어근≠어간: **높**이다

cf. 어미와 접사의 모양이 같은 경우 구분하는 방법

- 수식어

나는 놀라운(관형어) 꿈을 꾸었다.

나는 마음을 철저히(부사) 비움으로써 행복해졌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명사,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이다

꾸-가 꿈으로 바뀌며 명사가 되었으므로 **ㅁ**은 접사다

비우-가 비움으로 바뀔 때 품사는 변하지 않으므로 **ㅁ**는 어미다

- 서술성

철수는 그림(1)을 그림(2)

철수가 한 일에 대해 서술해주는 단어는 (2)이다

그러므로 (1)은 명사, (2)는 동사이다.

(1)에서 그리-가 그림으로 바뀌며 명사가 되었으므로 **ㅁ**은 접사다

(2)에서 그리-가 그림으로 바뀔 때 품사는 변하지 않으므로 **ㅁ**는 어미다

## 5. 문장

###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

주성분	끌격이 되는 부분이며 필수적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을 꾸며줌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x	독립어

구: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

절: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의미 단위로서 더 큰 문장의 일부

### 문장 성분별 특성

#### 1) 주어

동작·작용의 주체, 성질·상태를 지닌 대상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절에 주격 조사 이·가·께서 붙음

#### 2) 서술어

주어의 동작·작용·성질·상태 등을 나타냄

보통 하나의 용언 또는 체언+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 이상의 용언으로 이뤄지기도 함(본용언과 보조용언)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한 자리	주어만 요구함	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
두 자리	주어 + 목적어/보어/부사어	나는 의사가 되었다.
세 자리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3)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작용의 대상이 됨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절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음

#### 4) 보어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 5) 관형어

관형사·체언·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용언과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임

#### 6) 부사어

부사·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용언의 부사형

부사어는 문장에서 없어도 됨·세 자리나 일부 두 자리 서술어의 경우 필수적임

ex) 세 자리 서술어: 넣다, 주다, 삼다

ex) 두 자리 서술어: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어울리다

#### 7) 독립어

체언의 단독 형태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이)여가 결합한 형태임

ex) 민수야, 이것 좀 해줘.

### 문장의 짜임

홀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남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남

#### 1) 이어진문장

대등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나열·대조 등 대등한 관계 -고, -으며, -으나, -지만 등 대등적 연결 어미 사용됨 ex)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종속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됨 앞 절이 뒤 절의 아래의 의미를 가짐	
	원인·이유	비가 오니까 날씨가 춥다.
	배경	집에 가는데 옛날 친구를 만났다.
	조건·가정	내일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산책을 가자.
	의도·목적	나는 어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양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중단·전환	그는 책을 읽다가 울고 말았다.
정도의 심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 2) 안은문장

안긴절	설명
명사절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사용됨 ex) 나는 <u>그가 돌아오기</u> 를 기다린다. ex) <u>그를 향한 감정이 사랑임을</u> 알게 되었다.
관형사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 -던이 사용됨 ex) 나는 <u>새로운 구두</u> 를 신었다. ex) 그는 <u>내가 사귀던</u> 사람이다.
부사절	부사형 어미 -게, -도록, -듯이와 부사화 접미사 -이로 실현됨 ex) 그는 <u>예쁘게</u> 웃었다. ex) 사람들이 <u>지나가도록</u> 비켜 주자.
서술절	할머니께서는 <u>건강이 좋으시다</u> .
인용절	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음 직접 인용에는 (이)라고,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해 실현됨 직접 인용: 그가 내게 <u>“괜찮으세요?”</u> 라고 물었다. 간접 인용: 그가 내게 <u>괜찮으냐고</u> 물었다.

cf. 그가 착한 학생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가 착한 학생임을 모르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절

(그가 착한 학생) 위 관형절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착한) 학생을 꾸며주는 관형절

### 문장의 표현

#### 1) 종결 표현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문장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판정 의문문: 예/아니오의 답을 요구함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어 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함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서술·명령·감탄 등의 효과를 가짐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문장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 2) 부정 표현

부정문	'안'(단순 부정·의지 부정)	'못'(능력 부정)
의미	단순한 그렇지 않음·주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음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	부정하는 말 앞에 못
긴 부정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

3)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화자가 주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냄 [1] 선어말 어미 -(으)시- [2] 주격 조사께서 [3] 계시다, 주무시다 등 특수한 어휘 직접 높임: 대상을 높임 ex)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간접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소유물·생각 등도 높임 ex) 선생님께서는 댁에 책이 많으십니다. 있다 → 계시다(직접) 있으시다(간접)												
상대 높임	화자가 상대(청자)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냄 [1] 종결 어미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td> <td>격식체</td> <td>비격식체</td> </tr> <tr> <td></td> <td>하십시오체</td> <td>하오체</td> </tr> <tr> <td></td> <td>하계체</td> <td>해라체</td> </tr> <tr> <td></td> <td>해요체</td> <td>해체</td> </tr> </table> [2] 보조사 요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객체 높임	화자가 객체(목적어·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냄 [1] 부사격 조사 께 [2]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보다 등 몇몇 특수한 동사 ex) 우리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4) 시간 표현

시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발화시(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사건시(동작·상태가 나타나는 시간)의 관계에 따라 과거-현재-미래로 나뉨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함 [1] 선어말어미 -았/었- [2] 선어말어미 았/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엔 그렇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3]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선어말어미 -더- [4] 관형사절로 안길 때: -(으)ㄴ/-던/-았던/-었던 ex) 저건 제가 읽은/읽던/읽었던 책입니다. [5] 형용사와 '이다': -던/-았던/-었던 ex) 우리가 아직 어리던/어렸던 시절이 떠오른다. ex) 우리가 아직 학생이던/학생이었던 시절 떠오른다. [6] 시간 부사어: 어제
현재 시제	사건시 = 발화시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 확정적인 미래의 말할 때도 사용됨 [1] 동사: 선어말어미 -는/-ㄴ [2] 형용사나 '이다': 특정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 [3]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 [4] 형용사와 '이다': -(으)ㄴ ex) 봄에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ex) 우리 과 회장인 그가 도착했다. [5] 시간 부사어: 지금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임 [1] 선어말 어미 -겠- [2] 선어말 어미 -리- [3]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이)- [4] 관형사절로 안길 때: 관형사형 어미 -(으)ㄹ ex) 이 곳에 남을 사람들은 여기로 모여라. [5] 시간 부사어: 내일

상대 시제: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ex) 수영장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발화시를 현재로 하는 절대 시제로 생각하면 위 사건은 과거 시제이다. 하지만 전체 문장의 사건시인 '붐볐다'를 기준으로 하면 붐빈 사건과 수영을 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상대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동작상: 완료·진행처럼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

활용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 표현됨

진행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ex)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완료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냄 ex) 밥을 다 먹었다/먹어 버렸다.(완료) ex) 달이 떠 있다.(완료된 상태에서 지속)

cf. '-아 있다'와 '-고 있다'

앉아 있다(완료) 앉고 있다(진행)에서 알 수 있듯이 '-아 있다'는 완료를, '고 있다'는 진행을 나타낸다.

5) 피동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설명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표현(↔능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표현(↔주동 표현)
파생적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합 ex) 공원이 눈으로 덮였다.	주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가 결합 ex) 그가 물을 끓인다.
통사적	용언 어간에 -아지다/어지다- 결합 용언 어간에 '-게 되다' 결합 ex) 나는 그에게 버려졌다.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함 ex) 그가 날 죽음에 이르게 했다.

cf. 피동문의 오류

이중피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 + '-어지다'의 표현은 잘못됨 ex) 이 문제가 풀리지(풀+리+어지)지 않는다. → 풀리지 ex)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보+이+어 진다) → 보인다
-되어지다 -지게 되다	잘못된 표현임 ex)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 해결되지 ex) 그는 결국 잡혀지게 되었다. → 잡혔다
-리우다	불리우다, 팔리우다, 갈리우다, 잘리우다 등은 잘못된 표현임 ex) 그는 훌륭한 기수로 불리웠다. → 불렸다

cf. 사동사의 피동은 올바른 표현이다(이중피동이 아니다)

사동: 그가 아이를 여자의 품에 안겼다.

피동: 아이는 여자에게 안겨졌다.

'안기어졌다'에서 '기'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므로 뒤에 통사적 피동인 '어지다'가 결합해도 이중피동이 아니고, 문법적으로 옳다.

ex) 밝히다, 안기다, 비우다, 넓히다, 웃기다, 울리다 등

cf. 기본형에 접사와 똑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

웃을 말리다: 기본형은 마르-인데 사동 접사 '리'를 붙임

싸움을 말리다: 기본형이 말'리'다

ex) 빌리다, 말리다, 여기다

6) 인용 표현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작은따옴표에 넣어 인용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

고대 국어(~10세기)

표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함

고유 명사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인명·지명·관직명 표기
서기체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 사용함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음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에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표기 ex)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sup>면</sup> )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음

음운

자음	평음과 격음만 있었으며 음절 말의 자음들이 음가대로 받음됨
모음	ㅏ, ㅑ, ㅣ, ㅓ, ㅕ, ㅗ, ㅛ

문법

조사	어미
주격 조사: 이 목적격 조사: (으)르 보조사: (으)ㄴ	관형사형 어미: -르, -ㄴ, -는, -던 연결 어미: -고, -며 종결 어미: -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중세 국어(10~16세기)

표기

종성 표기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8가지였으므로 받침에도 그 8가지의 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어 적기	기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받침이 있는 체언·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가 붙을 때 받침에 있는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씀 ex) 누니(눈이), 소닐(손을), 노파(높아), 이즈니(있으니)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성조 표기	소리의 고저(성조)를 통해 단어를 구분함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됨			
	평성	무점	낮은 소리	아
	거성	한 점	높은 소리	아
	상성	두 점	낮았다 높은 소리	아

음운

자음	경음(된소리) 계열이 등장함 파찰음 ㅈ, ㅊ이 현대 국어와 달리 경구개음이 아   있었음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ㅂ과 그 뒤에서 자음은 따로따로 받음되나 ㅅ와 그 뒤에 자음에서는 ㅅ이 받음되지 않고 뒤의 자음을 경음화하므로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순경음 ㅂ, 반치음 등이 쓰임
모음	7개의 단모음: ㅏ, ㅑ, ㅣ, ㅓ, ㅕ, ㅗ, ㅛ 양성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ㅠ, ㅚ, ㅜ, ㅠ, ㅚ 음성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ㅚ, ㅜ, ㅠ, ㅚ 상향식 이중모음(반모음+모음): ㅑㅓ, ㅑㅕ, ㅑㅗ, ㅑㅛ, ㅑㅜ, ㅑㅠ, ㅑㅚ, ㅑㅜ, ㅑㅠ, ㅑㅚ j가 후행한 하향식 이중모음: ㅑㅓ, ㅑㅕ, ㅑㅗ, ㅑㅛ, ㅑㅜ, ㅑㅠ, ㅑㅚ 상향식 이중모음 뒤 반모음: ㅑㅓ, ㅑㅕ, ㅑㅗ, ㅑㅛ, ㅑㅜ, ㅑㅠ, ㅑㅚ  모음: j가 후행한 모음들 +

문법

1) 주격 조사

	모음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부터+  → 부테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사름+이 → 사름미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생략	불휘+∅ → 불휘

2) 서술격 조사

라	모음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부터+  시니라 → 부테시니라
이라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일흠+이라 → 일후미라
∅라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생략	머리+∅라 → 머리라

3) 목적격 조사

을/을	자음 뒤	ㅁ으물(마음을), 나라흠(나라를)
를/를	모음 뒤	놀애를(노래를)

4) 관형격 조사

	환경	특징	예
ㅅ	높임명사, 무정명사 뒤에		기왕ㅅ 집(기왕의 집)
익	양성모음 뒤	유정명사 뒤에	ㅁ르   (말의)
의	음성모음 뒤		최구의 집(최구의 집)

5) 부사격 조사

애	양성모음 뒤	바르래 가느니(바다에 가니)
에	음성모음 뒤	굴허에(구덩이에)
예	모음 뒤	

6) 의문문 표현

설명 의문문	종결 어미 -뇨/료 또는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	므슴 마를 니르느뇨 이 엇던 사름고
판정 의문문	종결어미 -녀/려 또는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	져므며 늘구미 잇느녀 이 따리 너희 풍가

7) 객체 높임 표현

목적어·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습/-줍/-습-  
ex)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 흐노니, 세존피 안부물줍고

근대 국어(17~19세기)

표기

성조와 방점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방점 표기가 점차 사라짐
종성 표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ㄷ로 받음됨), ㅇ 7개를 주로 사용함
거듭 적기	이어 적기가 현대의 끊어 적기로 바뀌는 과도기적 표기 바믈(이어적기) → 밤믈(거듭 적기) → 밤을(끊어 적기)

음운

자음	반치음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ㅇ이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ㅀ로 변화함 ㅂ계· ㅃ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세 된소리로 바뀜 격음화와 경음화가 나타남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나 j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됨 ex) 남금 → 임금 ㅈ·ㅊ이 치조음에서 구개음으로 변화됨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모음	중세 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ㅑ, ㅓ가 단모음화해 8개의 단모음 체계(ㅏ, ㅑ, ㅣ, ㅓ, ㅕ, ㅗ, ㅛ, ㅜ)가 됨. 이후 ㅑ, ㅓ의 단모음화 일어남 ·가 둘째 음절 이하에선 ㅓ로 바뀜. 이후 첫째 음절에서 ㅓ로 바뀜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ㅓ가 원순 모음 ㅑ로 변화함 ex) 물 → 물

문법

주격 조사 '가'	초기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음 → 체언 전체로 확대 반치음이 소실되며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	→ 겸양 선어말 어미스오/즈오/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앓/엇이	확립됨